

몸으로 알고 살기

기우뚱한 균형 속에서 '진화하는 몸'을 만나다.

강신익 / 의철학자, 인문의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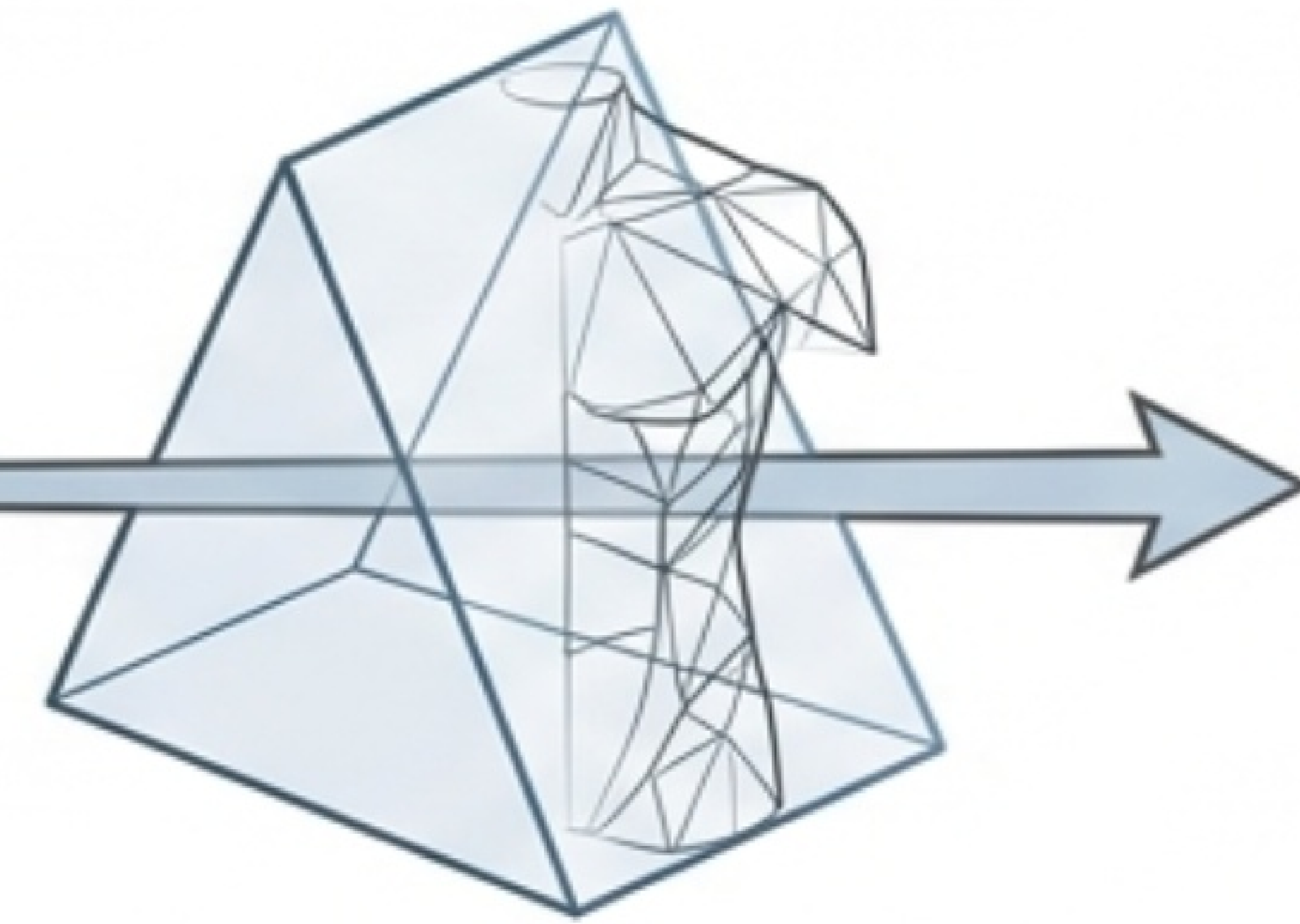
나는 몸으로 세상을 경험한다

가장 당연한 이 상식의 숨은 전제



나 (추상적 주체)

은연중에 우리는 굳게 믿고 있다.
경험의 진짜 주인은 몸속에 숨은 추상적인 '나'이며,



몸 (구체적 객체)

몸은 그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자
통과해야 할 프리즘일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한다. “나는 나의 몸을 가지고 있다(I have my body).”

심신이원론의 눈부신 성과, 그리고 본질적 모순



[+] 몸과 마음을 분리한 결과 (과학과 의학의 탄생)

- 영혼의 찌꺼기를 도려낸 순수한 객관적 물질로서의 '몸'
- 해부학과 생리학의 발전, 17세기 이후 현대 생물의학(biomedicine)의 눈부신 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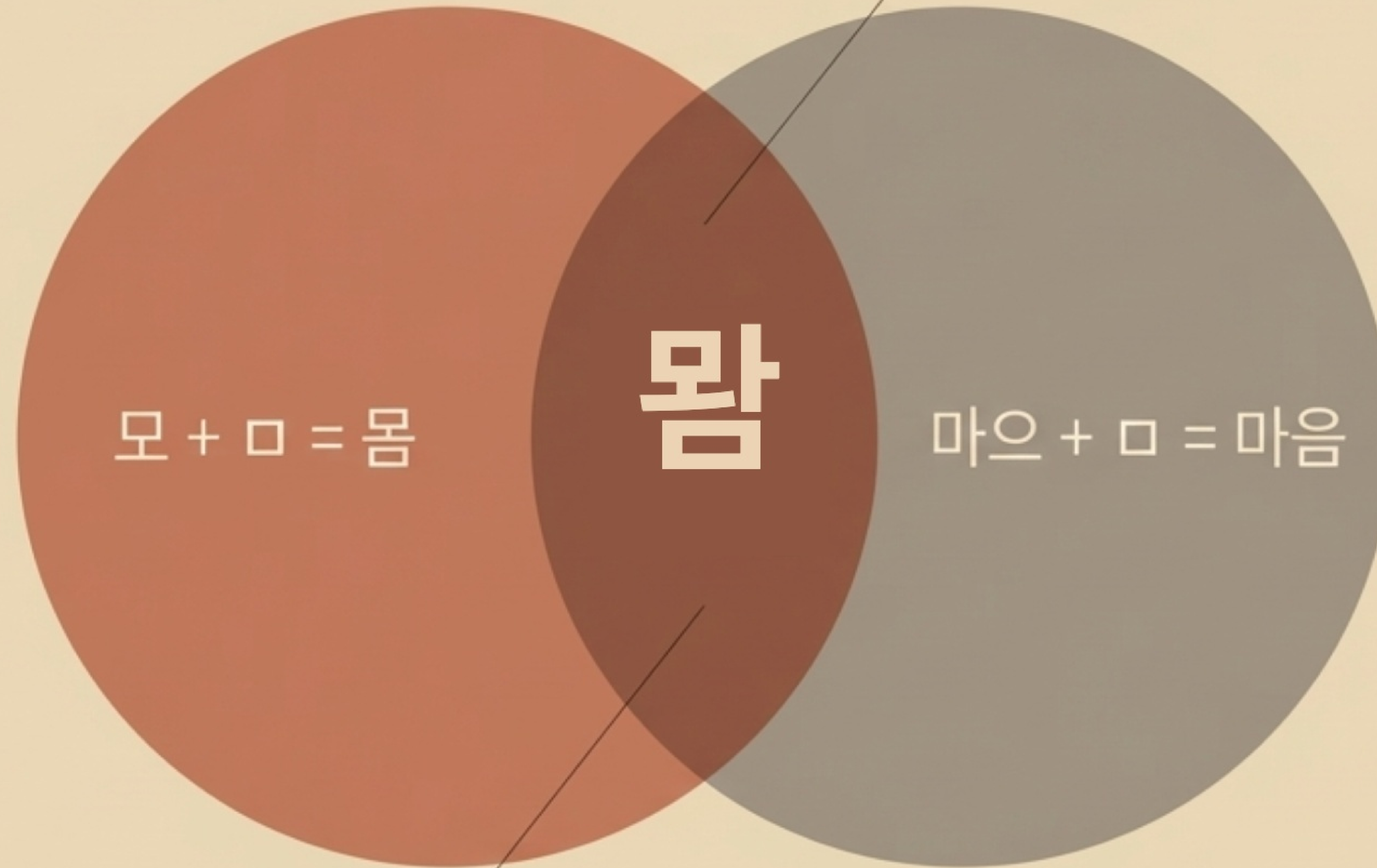


[-]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남겨진 현상들 (모순의 시작)

- 플라세보 효과: 과학적으로 약효가 없어야 할 약이 몸을 치유하는 현상
- 마음의 힘: 주관적 마음 상태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객관적인 몸의 반응
 - 관계의 상실: 공감과 신뢰가 사라지고 차가운 계약만 남은 의료 현장

**몸은 철저한 물질, 마음은 변화무쌍한 심리라는 완벽한 분리.
이 견고한 사유의 틀로는 진짜 삶의 생생한 현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추상적인 '나'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서의 맘



몸과 마음은 결코 다른 기원을 가진 실체가 아니다.
우리말의 가장 원초적 발음인 'ㅁ'을 공통으로 품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
한국의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사랑한, 몸과 마음이 합쳐진 '맘'.

주인인 마음이 몸을 단순한 도구로 부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담은 몸, 즉 '맘' 자체가 세상을 직접 마주하고 살아낸다.
몸-마음-세상은 주객이 분리되지 않은 채 복잡하고 생생하게 얽혀있다.

강의 목차

1. 서론

인문의학의 정의와 몸의 역사적 의미 고찰

2. 몸, 그 얽힘의 역사

- a. 빅히스토리
- b. 생명의 역사
- c. 문명과 문화의 역사
- d. 의학과 의료의 역사

3. ‘나’라는 “몸”의 역사

- a. 애국과 정의
- b. 몸과 위생
- c. 학문과 현실
- d. 일상의 발견

4. 몸에 대한 얽힘의 역사

- a. 심신이원론과 몸 일원론
- b. 유기체론과 전일론
- c. 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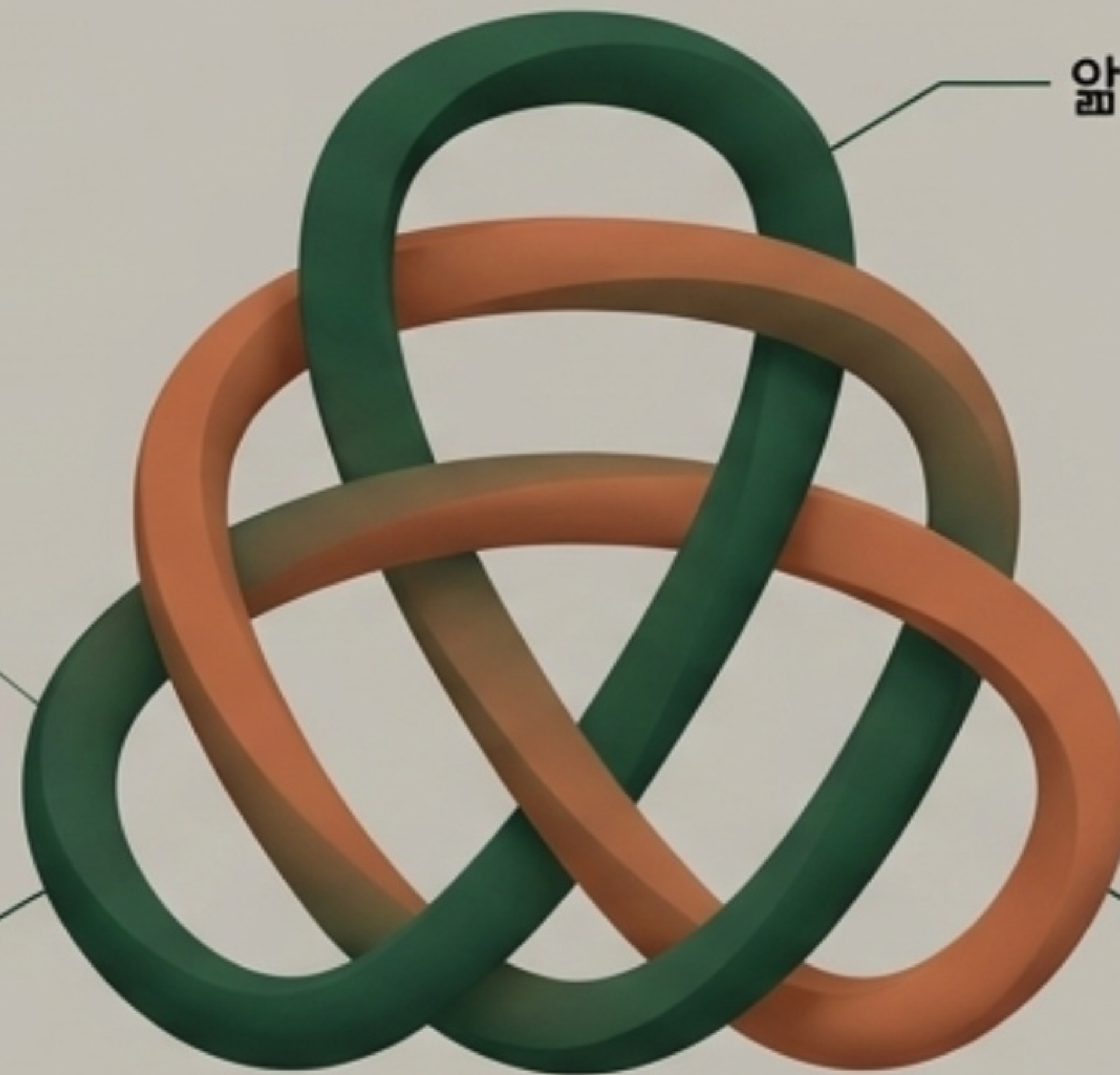
5. 이 책의 주장

- a. 삶은 몸의 문제풀이다.
- b. 몸은 삶의 크로노토프다.
- c. 몸은 삶을 앓는다.
- d. 나는 진화하는 몸이다.
- e. 인문의학은 배우는 의학이다.
- f. 참살이는 인문의학의 규범이다.

앎, 삶, 함이 하나로 얽힌 새로운 실마리

이것은 단순히 반목하던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화해만을 위한 성찰이 아니다.
역사와 더불어 변화해 온 새로운 삶의 규범을 창출하는 일이다.

페미니스트 철학자 캐런 바라드(Karen Barad)의 통찰처럼, 파면화된 몸의 담론은 이제 윤리-존재-인식론(ethico-onto-epistemology)으로 묶여야 한다.



앎 (인식):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

삶 (존재): 몸으로 존재하는 방식

함 (윤리): 타인,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제, 몸으로 알고 살아가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한다.**

몸, 138억 년의 시간이 얽힌 현장

우리는 기껏해야 백 년 남짓을 살지만,
이 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거대한 시공간을 품고 있다.

앎과 삶

삶은 세상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앎고 알아가는' 과정이다.

인문(人文)과 신문(身紋)

사람의 무늬(人紋)는 삶을 앎는 동안
몸에 새겨지는 거대한 시간의 지층이다.
기계를 고치는 객관적 과학을 넘어,
내 몸에 새겨진 무늬를 읽어내는 여정을 시작한다.



유전체는 고정된 설계도가 아니라 생존의 축적이다

빅히스토리 (138억 년)

우주, 지구, 생명, 인류의 파면화된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생명의 역사 (38억 년)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DNA를 공유한다

유전체의 진실

단백질을 코딩하는 염기서열은 단 1~29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고정된 드럼이 아니라, 38억 년의 생존 경험이 주를 잡힌 '생명의 유연한 사형탑'이다.

인류의 역사적 기억과 고통은 몸의 무늬로 새겨진다



기억의 결합

침팬지와 분리된 이후 맹수와 싸우고
공동체를 이룬 경험은 유전체(생물학적 기억)와
문화(역사적 관행) 양쪽에 동시에 새겨진다.

고난과 진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대규모 역병의 상처. 인류의 역사는
고난과 함께한 몸의 역사다.

앓아낸 지혜

시대의 고통을 겪고 그것을 '앓아내며'
터득한 지혜가 현재 생존의 원동력이다.
생명과 문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치유의 갈망이 만들어낸 지식은 때로 삶을 지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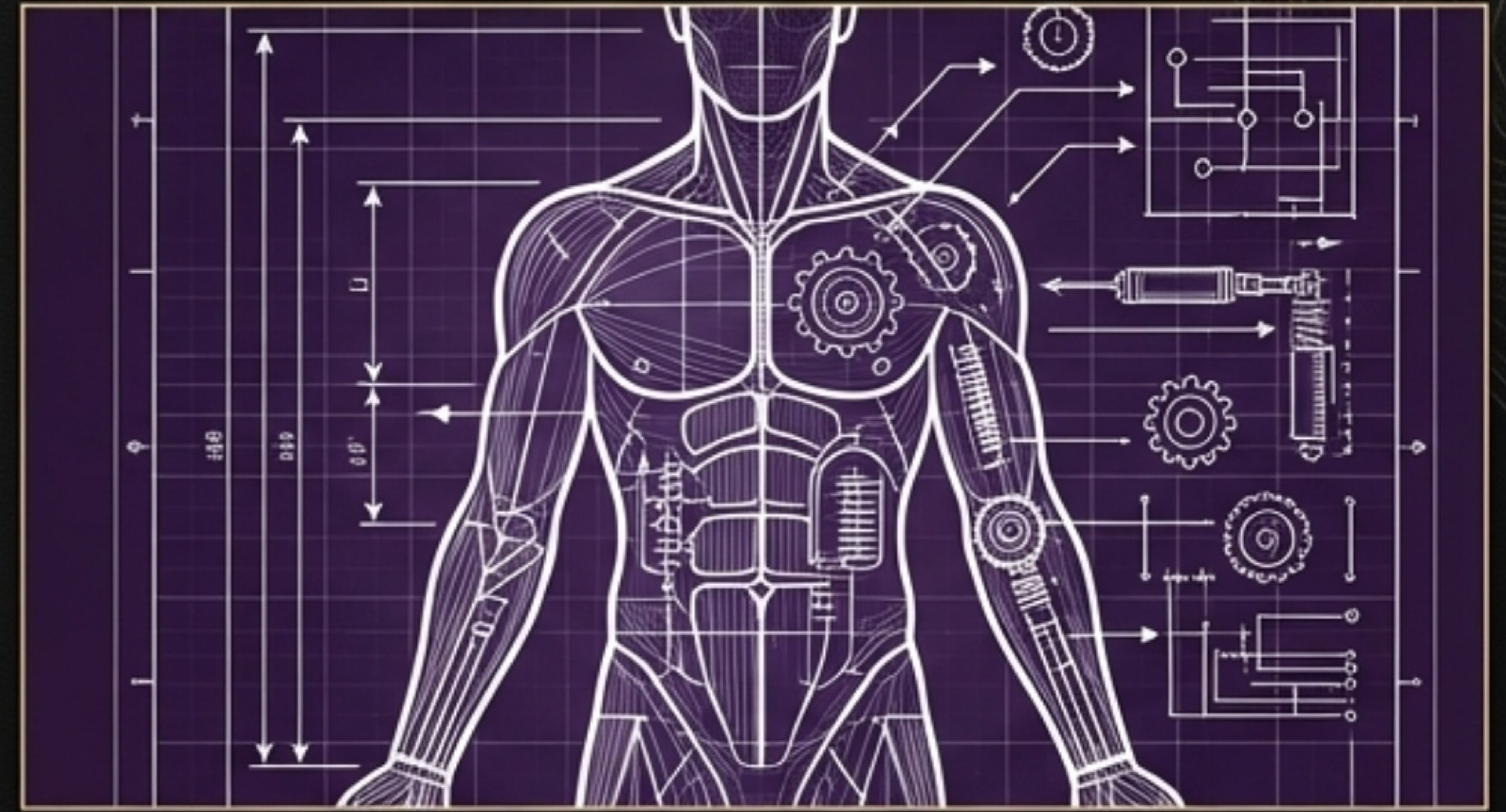
고대 의학 (자연과 균형)



관점: 우주 질서와의 상응. 체액의 균형과 오��의 상생·상극. '관계와 균형'을 증시한다.

앎의 함정: 앎이 비대해지며 오히려 삶의 경험을 무시한다 (예: 천 년 넘게 맹신한 서양의 사혈 요법).

현대 임상의학 (객관화와 통제)



관점: 기초의학의 완벽한 적용. 몸을 정교한 기계의 메커니즘으로 간주하며 '객관화와 통제'를 중시한다.

앎의 함정: 이론과 실천의 이분법. 생체 데이터를 득점하고 환자의 고유한 삶을 통제하는 '생체권력(Bio-power)'으로 변질된다.

치유를 위해 탄생한 지식(앎)이 비대해지면, 역설적으로 환자의 고유한 경험(삶)을 지배하고 억압하게 된다.

우리의 몸은 네 가지 거대한 역사가 박동하는 교차점이다

우주적 시간
(138억 년 빅히스토리)

생물학적 진화
(38억 년 생명)

나의 몸

치유의 지혜
(의학과 의료)

역사적 경험
(문명과 고난)

빅히스토리 × 생명 × 문화 × 의학
= 지금 여기, 삶과 삶이 얽혀 박동하는 유일무이한 현장

우리의 몸은 파편화되어 병상에 누워있는 객체가 아니다.
이 모든 역사가 입축되어 매 순간 새롭게 생성되는 '우주 그 자체'다.

엄힘을 꿰뚫어 볼 때 진정한 삶의 주체성이 회복된다

생체권력으로부터의 해방

누군가 독점한 데이터나 유전자라는 사전 결정된 구조에 내 몸을 수동적으로 맡기지 않는 것.

삶의 발랄함

거대한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 내 삶의 자율성을 되찾는 일.

이것이 사람의 무늬(人紋)를 읽어내는 새로운 의학,
'엄힘의 인문학'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처방이다.



‘나’라는 몸의 역사

우주와 생명, 그리고 시대의 흔적이 새겨진 나의 무늬에 대하여



내 몸은 과거가 압축된 기록이자,
미래를 그리는 지향점이다.

나의 몸과 마음은 단순히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온 시대, 겪어온 사건, 버텨낸 경험을
고스란히 담아낸 그릇이다.

우주와 생명, 역사가 얽혀
내 몸에 고유한 '무늬'를 남겼다.

이 기록은 유전체가 생명의 역사를 간직하듯,
앞으로의 삶이 흘러갈 저수지가 된다.



1957

1957년, 우연이 만든 무의식의 무늬

나는 전쟁이 끝난 지 4년 만에 태어났다.

내가 세상에 나온 날은 이승만의 생일이자,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과 겹쳤다.
훗날 박정희 독재자가 암살된 날과도 같았다.

아무 인과 없는 우연의 겹침이었으나,
영웅과 침략자, 독재자의 서사는 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설익은 '애국과 정의'의 원천이 되었다.

어린 시절, 3.15 부정선거의 손발 역할을 했다는
아버지의 씩씩한 자백을 우연히 들으며,
나는 정의라는 가치가 현실에서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가치가 전도된 세상, 의심을 배우다

중학교 3학년 가을, 10월 유신이 선포되었다.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독재 헌법을 정답으로 무조건 외워야만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권력자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모든 가치가 전도되는 폭거였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어린 마음의 상처는 나에게 '반골 기질'을 심어주었다. 기존 질서를 무조건 믿기보다 일단 의심부터 하는 습성이 내 무늬가 된 것이다.

가난과 열악한 위생


적대적 기후

질병

연약한 몸이 세상과 투쟁하며 나를 빛어내다

전후 최빈국 시절, 내 연약한 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태롭게 단련되었다. 잦은 설사와 간염을 앓으며, 내 몸속의 면역 세포들은 외부 조건과 치열하게 싸우고 관계를 맺었다.

나라는 존재는 부모가 물려준 유전 형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가혹한 환경조건과 벌인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현실과 이상의 분리, 오만하고 순진한 계산

학생 시절의 나는 사르트르와 니체를 읽으며 부조리한 세상을 비판하던 혁명적 이상주의자였다. 기초 질서인 물리학과 천문학을 꿈꿨다. 하지만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180도 방향을 틀어 '치과의사'라는 먼저 돈을 벌어 경제적 여유를 얻은 뒤, 나머지 꿈인 개혁 운동과 철학 공부를 하겠다. 하지만 선후관계란 있을 수 없었다. 돈을 버는 동안 삶은 피폐해져만 갔다.

치과의사에서 의철학자로, 20년 만의 경로 수정

인생의 궤적을 완전히 틀어
해외 유학을 떠났다.

전공의, 대학병원 교수, 개업의로
20년을 살면서 깨달았다.
꿈은 현실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의해 단련되며 변해가는 것이었다.

단순한 철학이 아닌, 내가 몸담았던
의료 현장의 뼈아픈 경험을 재료 삼아
현실을 이해하고 개혁하기 위한 학문.
'의료인문학'과 '의철학'의
길로 접어들었다.

다시 마주한 부조리, 그리고 의료계의 '왕따'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한국 의료계는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었다. 1997년 환자 퇴원 사건을 시작으로, 의약분업(2000년), 원격진료(2004년), 의대 정원 확대(2020년, 2024년)까지 장기간의 파업이 반복되었다.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기득권 지키기에 분노했다.

불건전한 관행을 거침없이 비판하다 의료계의 의료계의 왕따가 되었지만, 그 욕을 먹는 것이야말로 인문과학을 공부한 나의 존재 이유라 여겼다.

“문제의 원인이 된 사유 양식에 머무르는 한,
그 문제는 절대로 풀 수 없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문제의 틀 자체를 깨부수다

원칙과 이상에만 매달려서는 굳어버린 현실을 바꿀 수 없었다.
전문가 중심의 가치관과 환자 대중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을 뿐이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사유 양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했다.

‘옳고 그름’에서 ‘같고 다름’으로의 대전환

과거의 시선 (의료 윤리 / Right vs. Wrong)

끝없는 논쟁과 정답 찾기

상대를 굴복시키고 설득해야 할 대상


갈등과 불화의 증폭

새로운 시선 (의철학 / Same vs. Different)

타자의 욕망 존중, 다름을 인내

상대를 이해하고 연결할 대상

문제 해결과 화해의 출발점



새로운
사태

막지 말고, 연결하며, 열어라

나와 다른 것을 막고 닫는 데 익숙한 의학과 의료가
삼아야 할 세 가지 지침이다.

1. 물금 (勿禁 - 내가 근무했던 지역): 막지 말라.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 어색하고 싫은 상황을 인내하라.

2. 양산 (梁山 - 물금읍이 속한 시): 징검다리가 되라.
나와 다른 것들을 들보처럼 연결하라.

3. 개벽 (開闢 - 천성산 수운 최제우의 기도): 열어라.
요란하지 않은 성찰을 통해 새로운 사태를 열어젖혀라.

“이빨 뽑다 이빨 까는 남자”의 삶의 진화

전반부 (치과의사):
생계와 ‘해야 하는 일’

돈을 벌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며 버티던 삶.
(이빨 뽑는 일)

후반부 (의철학자):
임무, 놀이, 그리고
‘하고 싶은 일’

공적 가치와 개인의
즐거움이 섞인 삶.
(이빨 까는 일)

노년 (현재):
자연의 섭리,
‘저절로 하게 되는 일’

인위적 의지조차 개입되지
않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드러나는 삶.

쇠퇴하는 신체, 확장되는 삶 (이순과 종심 사이에서)

나이 60대. 공자가 말한 이순(耳順)과 종심(從心)의 사이. 허리와 어깨는 쭈시고 신체의 반응은 느려지지만, 삶의 질적 측면에서 노화는 분명한 '성장'이다. 세계의 수많은 '다름'들이 내 삶 속에 풍부하게 녹아들기 때문이다. 완벽한 화해란 다름의 소멸이며 삶의 정지다. 불화야말로 화해의 기본 조건이다.

성장이란, 이 기우뚱한 세속적 균형과 불화를 피하지 않고 즐기는 것이다.



‘저절로’와 ‘스스로’가 빚어낸 일상의 발견

은퇴 후, 평생 보이지 않던 길가의 잡초와 이슬에 렌즈를 맞추기 시작했다. 보도블록 틈새의 민들레, 개망초, 패랭이꽃, 그리고 긴 밤을 지새운 이슬방울들. 관상용 화초나 급수기의 물방울처럼 인위적인 시간의 산물이 아니다. 혹독한 시련을 견디며 온갖 ‘다름’의 조건들을 시간과 버무려낸 자연의 경이로운 작품이다.

일상, 끝없는 불화와 화해의 여행

나라는 몸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인생이란 종착 지점이 없는 불화와 화해의 여행이다.

소소하지만 수많은 '다름'들이 어우러지는 이 일상의 한마당 속에서,
우주와 생명, 그리고 시대가 얽힌 나의 몸은 계속해서 새로운 무늬를 새겨 나갈 것이다.

인문으로 배우는 의학, 두 번째 이야기

몸에 대한 앎의 역사

심신이원론에서 포스트휴머니즘까지,
변화하는 몸의 패러다임



몸: 앎의 대상이자, 동시에 주체



일반적인 앎

주체(나)와 객체(사물)의 명확한 분리.
주체는 대상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 가정됨.

몸에 대한 앎

대상을 관찰하는 주체 자체가
곧 관찰의 대상과 겹치는
모순적이고 재귀적인 구조.

**결론: 삶이란 '몸이 몸을 알아가는 지혜'가
진화하는 양상이다.**

서양의 시선: 분리된 실체, 심신이원론

플라톤의 이데아론

- 완벽한 이상적 실재(원본)와 현실(사본)의 위계적 구분.

데카르트의 기계론

- 몸은 완벽히 통제 가능한 '기계', 마음은 그 속에 깃든 '유령'.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실체.

생물의학(Biomedicine)의 토대

몸에서 신성을 거둬내고, 고장 난 부품을 분해하고 수리하는 객관적 기계로 다루기 시작함.



동아시아의 시선: 연결된 흐름, 몸 일원론

천인합일(天人合一)과 천인상응(天人相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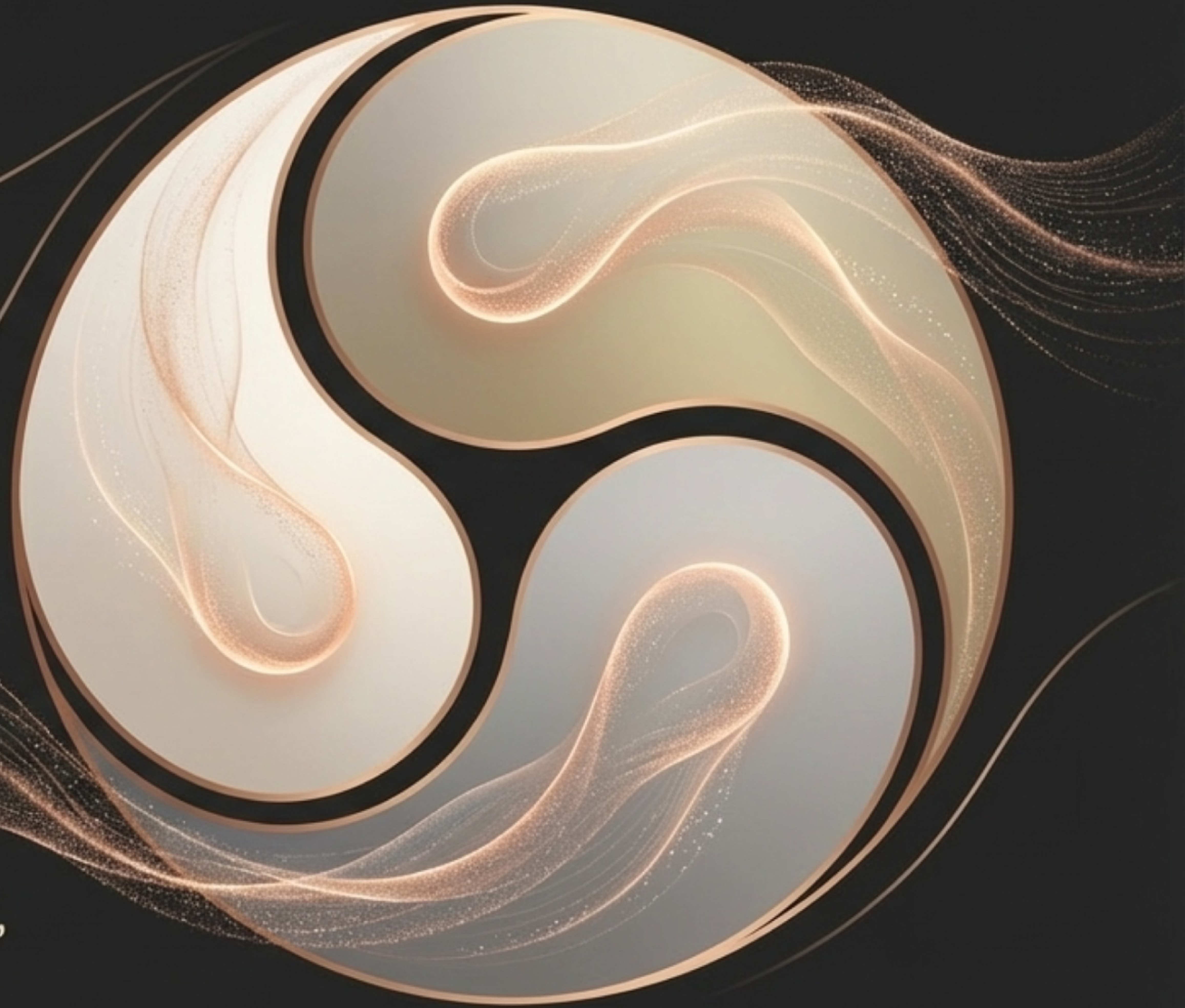
하늘(天)과 사람(人)은 대립하지 않으며
서로 감응하는 관계.

둘보다는 셋

이분법적 환원(원본/사본, 기계/유령)이 아닌
천·지·인 삼재(三才)의 조화로운 어울림.

기(氣)의 철학

몸(身)과 마음(心), 그리고 세상은 질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기운'이라는 동일한 작동 원리로 연결되어 흐른다는 관점.



서로 다른 두 가지 의학의 철학적 뿌리

구분	심신이원론 (서양)	몸(기) 일원론 (동양)
존재의 기본	대립과 분리 / 위계적 실체	조화와 감응 / 천지인 삼재
몸의 은유	조립된 기계 (Machine)	연결된 흐름 (Flow of Qi)
강조점	논리적 분석, 구성 성분으로의 환원	합일, 관계를 만들어 내는 힘
의학적 투영	근대 서양 생물의학	동아시아 전통 한의학

질병은 치료되었지만, 고통은 지속된다



+ 눈부신 성과

몸을 기계처럼 다루므로써 질병 퇴치와 생물의학의 비약적 발전 달성.

- 기계적 환원론의 맹점

몸 = 세포, 조직, 기관의 조립품으로 간주.



인간 소외의 발생

인간의 '마음'이나 '고통'은 기계적 몸에 부가된 부차적 현상으로 격하됨. 건강이나 행복 자체보다는 '질병의 퇴치'만이 의학의 최종 결과로 가정됨.

환원론을 넘어: 유기체론과 전일론(Holism)

Tier 1

과정으로서의 몸

몸은 구성 성분의 단순 집합이 아니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유기적 과정(Organic process).

Tier 2

확장되는 생명

내 몸 ↔ 다른 몸 ↔ 환경이 어우러져
더 큰 유기적 질서 형성 (예: 가이아 이론).

Tier 3

의학적 실천과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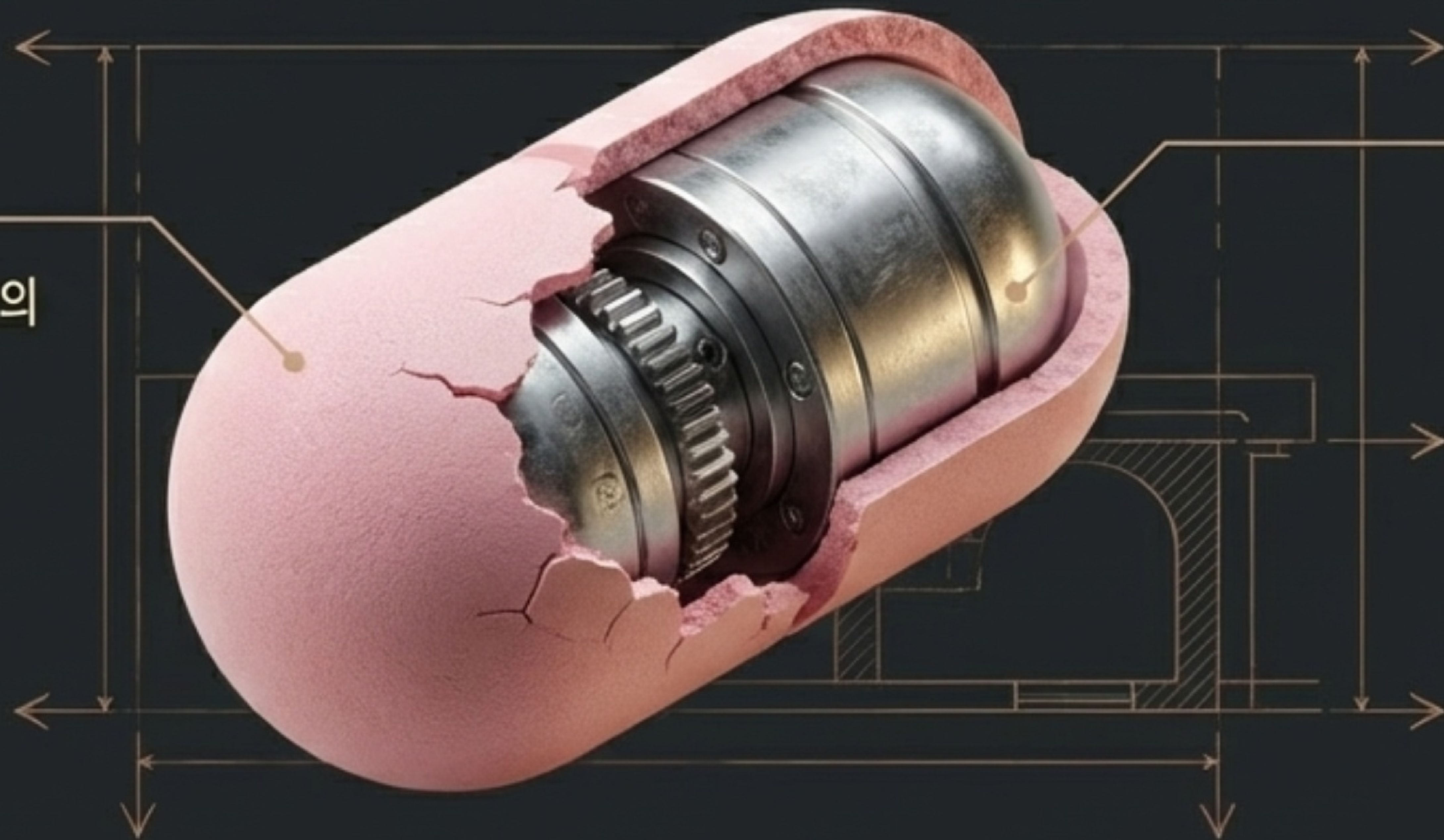
- 실천적 대안: 심신상관의학(Psychosomatics).
- 철학적 대안: 부분보다 몸 전체의 규범과 지향을 강조하는 보완대체의학의 기반이자, 현재 의철학과 의료인문학의 뿌리.



의료인문학의 맹점: '장식물'로 전락한 인문학

부드러운 코팅(Coating)

기존 의료인문학은 단단한 과학적 의학의 핵심을 둘러싼 얇은 포장지에 불과. 의학을 '분석 대상'으로, 인문학을 '추상적 주체'로 분리함.



대상화된 의학
구체적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걸도는 상태.

요구되는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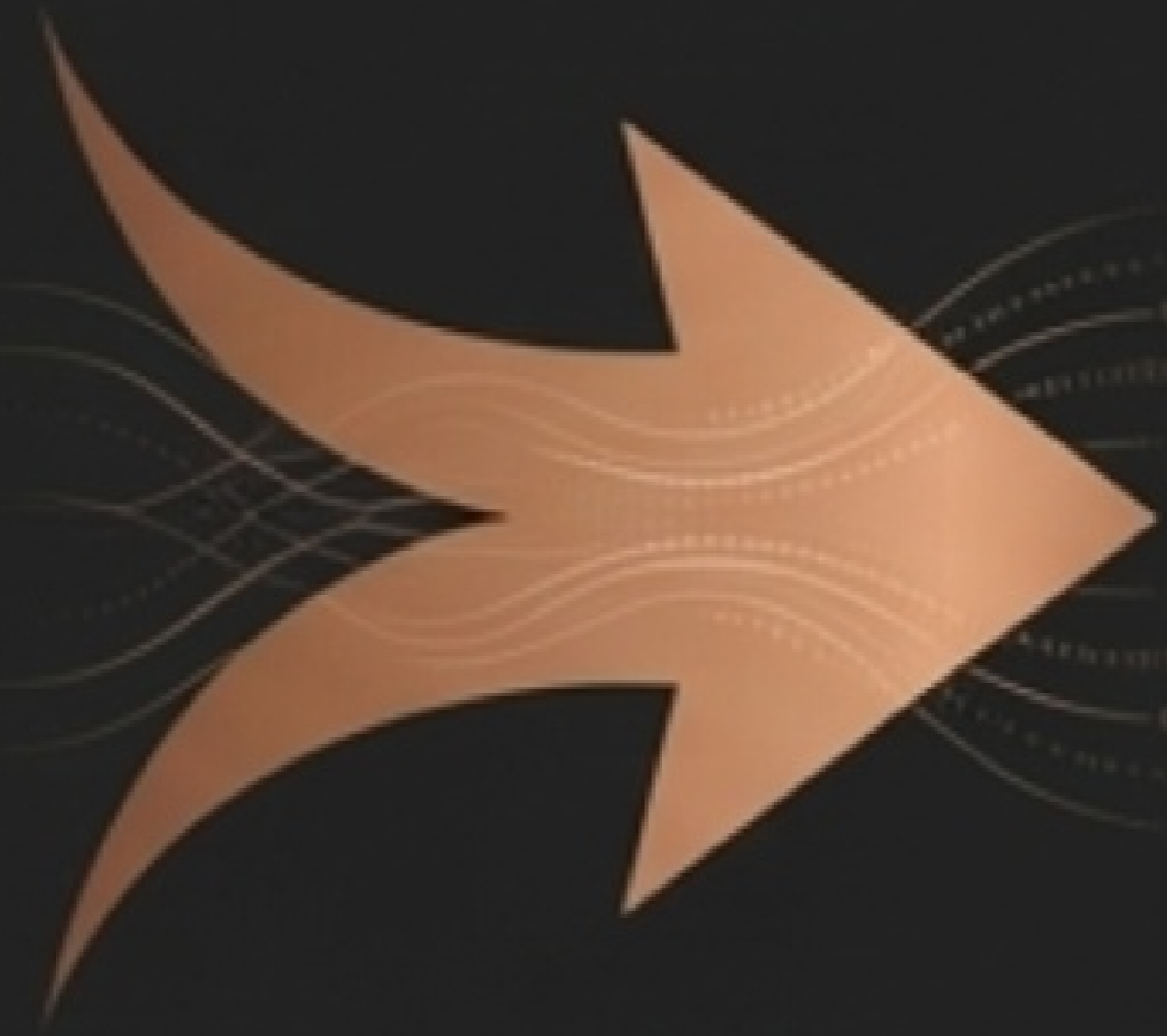
딱딱한 의학에 부드러운 인간을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인문학으로 이해한 '인간 자체'의 의학(인문의학)으로 나아가야 함.

근대적 인간중심주의의 붕괴와 포스트휴머니즘



휴머니즘의 한계

존엄성, 자율성 등 '추상적 가치'에 매몰.
시험관 아기, 생체 빅데이터 축적, 플랫폼 통제 등
변화하는 구체적 의료 환경을 설명 불가능.



포스트휴머니즘의 사유

- 자연과 인공 기술이 혼합된 새로운 몸.
- 추상적 보편 진리(다수 과학)에서 벗어나,
현장의 생생한 삶과 국소적 경험(소수 과학)에 주목.

변화하는 몸의 무늬를 읽다: 포스트휴먼 의학

인문의학의 새로운 지향

고정된 실체로서의 인문을 버리고,
시대와 과학과 함께 변화하는 몸과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근대적 봉사를 넘어

근대적 인간상에 맞춘 과거의 의학에
봉사하는 것을 멈출 것.

미래의 나침반

생활 현장의 구체적 몸을 중심에 두는 ‘포스트휴먼 의학’만이
과학적 의학이 나아갈 진정한 미래를 밝힐 수 있다.





기계의 몸을 넘어, 살아 숨 쉬는 실존의 지형도로

포스트휴먼 시대를 여는
인문학과 6가지 명제

몸의 재발견을 위한 6개의 철학적 이정표

존재론적 전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명제 1.
삶은 몸의 문제 풀이다.

명제 2.
몸은 삶의 크로노토프다.

명제 3.
몸은 삶을 앓는다.

명제 4.
나는 진화하는 몸이다.

실천적 적용
(새로운 의학과 삶의 방식)

명제 5.
인문의학은 '몸으로 앓는 삶'을
배우는 새로운 의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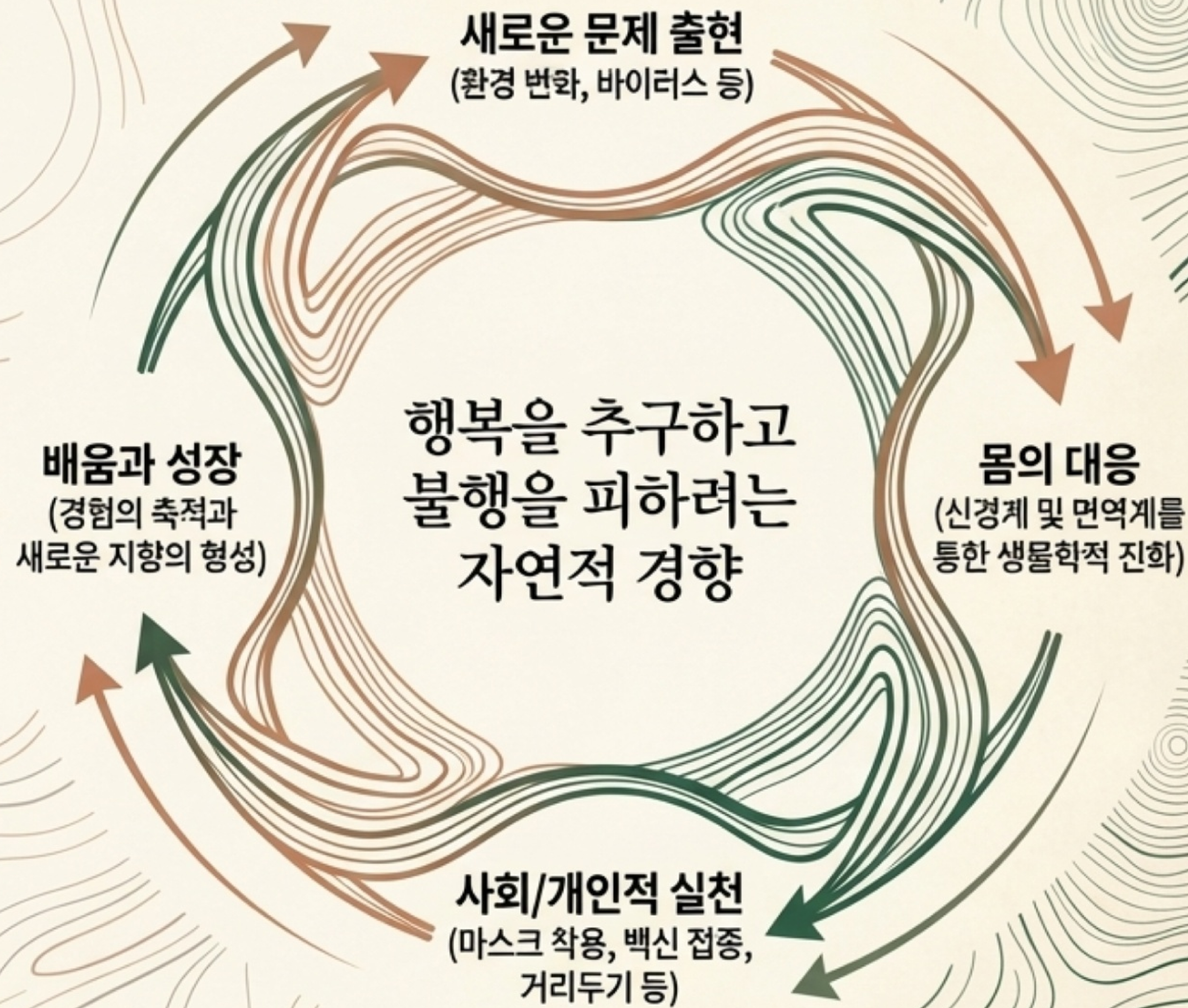
명제 6.
참살이는 인문의학의
규범이다.

종합

생물학과
포스트휴먼의학의
통합적 비전

명제 1. 삶은 몸의 끊임없는 문제 풀이 과정이다

생존의 조건은 선택할 수 없으며, 산다는 것은 주어진 몸의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진화 과정에서 마주한 자연조건과 고도로 밀집한 사회 환경은 새로운 문제를 던집니다.



명제 2. 우리의 몸은 과거와 미래를 품은 삶의 '크로노토프(Chronotope)'다

단순한 기계적 실체가 아닌, 조상들의 진화적 경험과 개인의 평생에 걸친 문제 풀이 전략이 시공간에 통합되어 새겨진 살아있는 지도입니다.

Z축 (진화/유전체):
진화의 시간 속에서
조상들이 겪은 문제풀이 전략의
유전적 기록

Y축 (시간/생애):
개인의 생애 주기, 면역계와 신경계에
축적된 평생의 기억과 상처

X축 (공간/환경):
물리적 세상,
자연조건,
사회적 환경

명제 3. 몸은 세상을 앎으면서, 세상을 알아간다

몸을 안다는 것은 객관적 생물학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마주친 세상과 소통하며
더불어 변해가는 실존적 과정입니다.
몸은 앎이를 통해 주어지는 문제를 풀고,
세상을 그 속에 품어 성장합니다.

앎이랑이

몸을 앎는 주체
(개별적 몸의 시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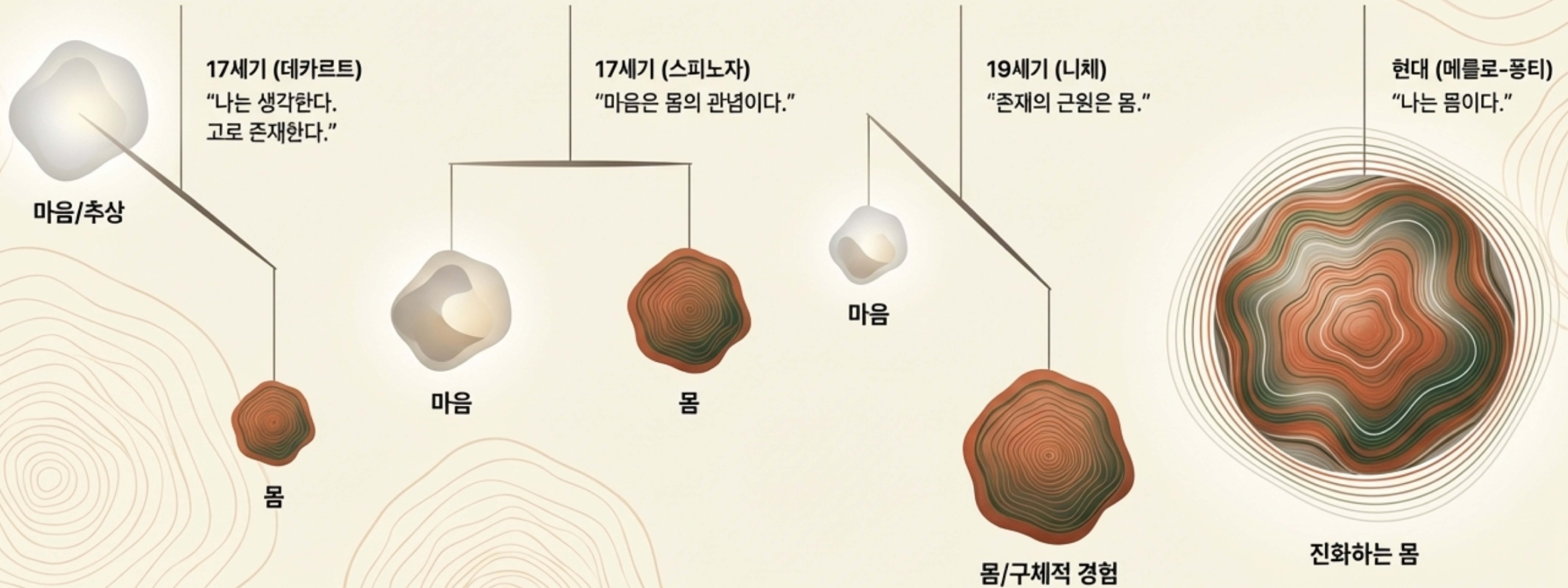
앎은 앎이다
(성장, 변화,
세상과 하나 됨)

세상과의 소통
(환경과의 마찰과 수용)

명제 4.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진화하는 몸'

서양 철학사에서 몸은 오랫동안 마음의 종속물로 여겨져 해부와 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고정된 존재가 아닌,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조건을 얹으며 살아가는 자율적인 삶의 주체(실존/탈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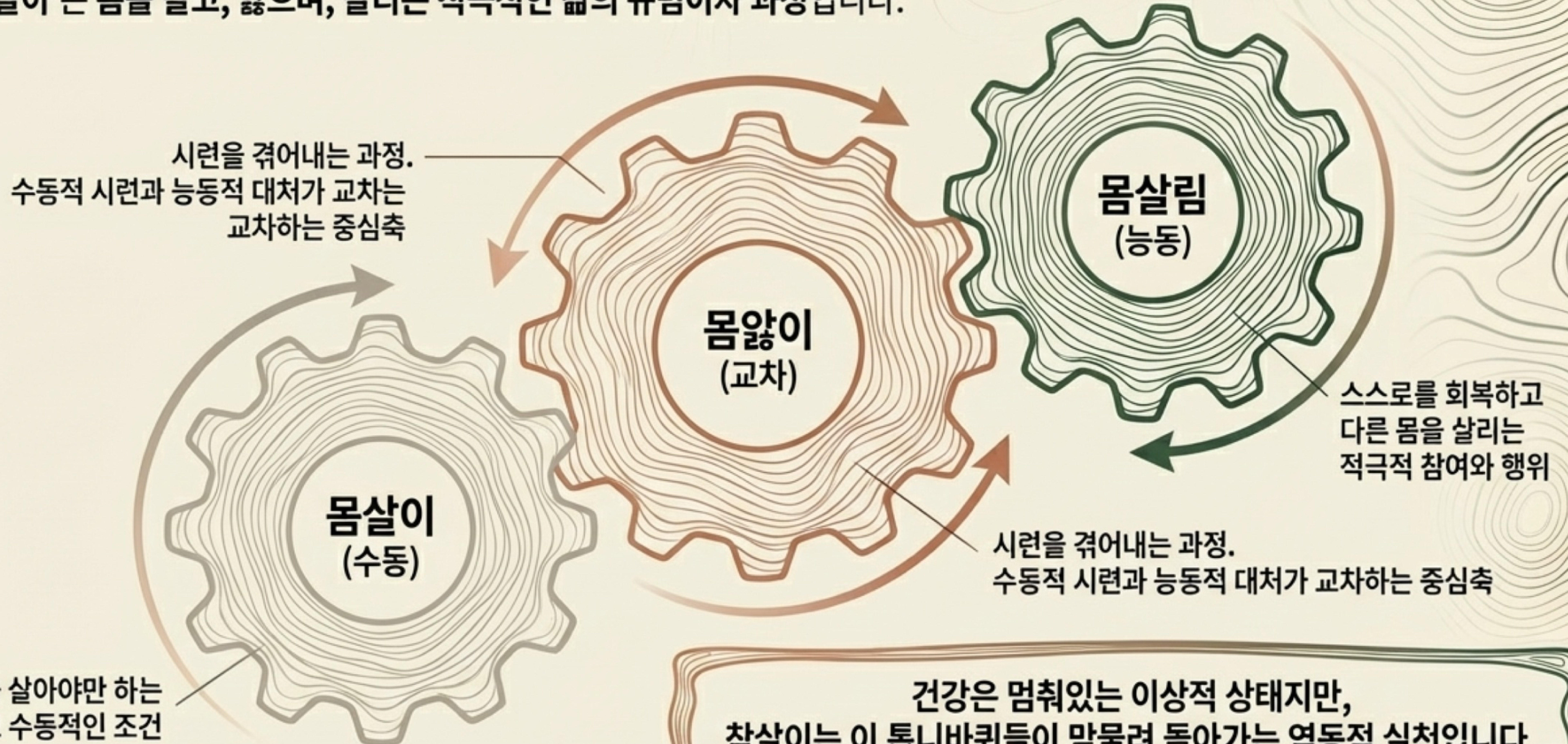
명제 5. 인문'을' 배우는 것이 아닌, 인문을 '통해' 삶을 배우는 새로운 의학

기존의 의료인문학이 생물의학의 틈새를 치장하는 데 그쳤다면,
비판적 인문의학(포스트휴먼의학)은 완전히 새로운 몸의 존재론 위에 세워집니다.

	생물의학 (Biomedicine)	인문의학 (Humanities Medicine)
몸의 존재론 (Ontology)	물질적/생물학적 기계 (나의 '것')	앓과 삶의 무늬로 구성된 크로노토프 (‘나’ 자체)
철학적 기반 (Philosophy)	심신이원론 (마음 우위, 해부/실험의 대상)	신유물론/현상학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존)
지향하는 목표 (Goal)	건강 (질병이 없는 정지된 안녕 '상태')	참살이 (몸으로 앓으며 살아가는 동력적 '과정')
인문학의 역할 (Role)	발생한 윤리 문제의 외부 해결사 (위임)	앓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수단 (통합)

명제 6. 이상적 '상태'로서의 건강을 넘어, 일상적 '과정'으로서의 참살이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말하는 단순한 안녕 상태(Well-being)를 넘어,
우리말 '참살이'는 몸을 살고, 앓으며, 살리는 적극적인 삶의 규범이자 과정입니다.



파편화된 기계를 넘어, 하나의 온전한 생명으로: 포스트휴먼의학의 나무

생물의학이 이룩한 막대한 과학적 성과를 토양으로 삼아,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몸으로 앓는 삶'을 긍정하는 새로운 통합적 비전입니다.

열매와 가지
(미래와 규범)

[명제 5] 삶을 배우는 새로운 실천으로서의 인문의학
[명제 6]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는 참살이의 규범

줄기 (현재와 주체)

[명제 3] 앓=앓이를 통해 성장하는 굵은 나이트
[명제 4]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진화적 실존

뿌리
(과거와 기반)

생물의학의 객관적 성과를 흡수하는 토양
[명제 1] 진화와 환경의 문제 풀이 기록
[명제 2] 시공간이 통합된 크로노토프적 기반

생물의학의 눈부신 성과를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과를 '나'라는 주체적
몸의 철학 안에서 온전히
꽃피우는 것입니다.